

2. 미세먼지는 왜 생기는걸까?

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발생한 장소(발생원)와 특징이 다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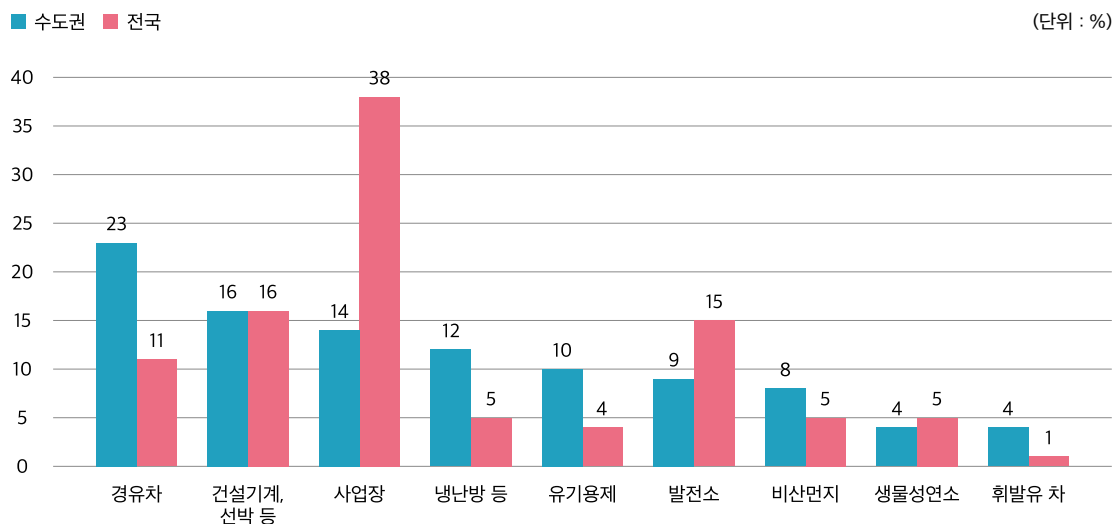
상대적으로 큰 입자는 바다, 흙, 꽃가루 등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큰 먼지 두 개가 만나서 부서지면서 생깁니다.

그보다 더 작은 입자는 석탄, 석유가 불에 타면서,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, 화학물질 제조과정 등 사람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반면, 크기 $2.5\mu\text{m}$ 미만인 입자(PM_{2.5})는 화석연료의 연소, 트럭, 버스, 자동차 등의 배기가스,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등 주로 인위적인 발생원을 가지며, 화학반응과 응축과정을 거쳐 생성된 2차 발생이 주를 이룹니다.

미세먼지는 다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했나요?

2016년에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(NASA)이 함께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이 52%,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48%로 밝혀졌습니다.



<그림 5> 미세먼지 배출원별 비중 비교

자료: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(2017) 저자 편집